

EC HO

Vol.12

연말정산

에코와 함께 2017년의
12월을 정리해보자!



12

2017.DEC

EC HO

val.12

Engaging
Communicating
Hosting
Outreaching

발행인

김성해 Kim seong hae

편집위원장

이승민 Lee seung min 조은진 Jo eun jin

부편집위원장

권재승 Kwon jae seung

편집위원

Design - 손현아 Son hyun a

Design - 손민정 Son min jeong

Editor - 나중일 Na jung il

Editor - 김나영 Kim na young

Editor - 김가희 Kim ga hee

Editor - 김고은 Kim go eun

Editor - 공유나 Kong yu na

Editor - 우혜정 Woo hye jung

VOL 12 CONTENTS :

ALL ABOUT (E,H)

05 ALL ABOUT 집단지성

대구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집단지성의 모든 것

15 ALL ABOUT 학술제

대구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학술제의 모든 것

E

23 Good Bye COMM.ON

2017 학생회를 떠나며

C

27 현 학생회와 차기 학생회에게 바란다

30 새해에 듣고 싶은 노래

노래가 1년을 결정한다

O

33 2017 에디터조의 영수증

잘산것? 못산것?

35 DEAR MY DIARY

2017 다이어리를 떠나보내며

38 크리스마스를 보내는 나의 자세

40 연말 술자리 안주

42 롱패딩의 온도

43 2017 버킷리스트

45 길러낸 자식이 수 천 명이 넘는 거대한 엄마부대

마리아 수녀회



ALL ABOUT

(Engaging, Hosting)

특집 카테고리

ALL ABOUT 집단지성 현장캠프 2017:

매년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에서
진행되는큰프로젝트인집단지성
현장캠프 과연대년운이들은어떤
경험을하고돌아왔을까?

철학자자 미디어 학자인 피에르 레비의 정의에 의하면 집단지성이란, '어디에나 분포하며, 지속적으로 가치가 부여되고, 실시간으로 조정되며, 역량의 실제적 동원에 이르는 지성'을 집단지성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를 해석해보면 집단지성의 시작은 독립적인 개인에서 출발하고 그 개인들이 갖고 있는 지성은 존중받으며, 이러한 지성들은 낭비되지 않고 가치를 부여하고 조정하며 발전시키고 활용하여 긍정적 역동성을 불러일으켜 역량들이 실제로 동원되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존중받는 개개인의 지성이 모여, 긍정적인 역동성을 일으키게 하는 집단지성. 저널리즘, 광고 및 홍보, 영상제작과 스토리텔링 등 기존 미디어 랩실에서 각자의 꿈을 가지고 활동하던 친구들이 향후 본인이 진출하게 될 분야에 대해 먼저 지식을 습득해보고, 필요한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목적을 가지고 진행한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겠다.

친구들과 직접 본인이 가고 싶었던 기업을 섭외하거나 꼭 뵙고 싶었던 분을 만나기 위해 연락하는 일. 각자의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해야 할까 막막했던 그 시작부터 서울에 올라가 직접 꿈에 그리던 광경과 마주하고, 다른 사람들과의 이야기를 나누었을 때 그 또한 집단지성이 아닐 수 없다. 함께의 힘을 믿는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의 집단지성 현장캠프 첫눈을 맞이했던 유독 추웠던 겨울 더 흥미진진했던 현장캠프의 시간. 너무 재밌음을 보장 또 보장!

우리가 다녀온 회사
내가 입사하게 될 회사
미컴에서 경험하자!



 **대학내일** 기획및콘텐츠마케팅
서울 종로구 창경궁로 143

 **JTBC** 언론
서울 마포구 상암산로 48-6

 **뉴스타파** 언론, 방송
서울 중구 세종대로 19길 16

 **덱스터랩** 영상
서울 강남구 논현로 152길 34

 **제일기획** 광고기획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222

 **Buku** 콘텐츠기획
서울 성북구 성북동 279-1

 **AVA Ent** 영상콘텐츠
서울 마포구 동교동 154-25

 **KBS** 언론
서울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3 한국방송공사

 **국립중앙도서관**
서울 서초동

 **DAYS DAZE** 영상
서울 강남구 논현로 128길 22-4

 **국회의사당** 정부기관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언론진흥재단** 언론
서울 중구 세종대로 124 프레스센터

 **경향신문** 언론
서울 중구 정동길 3

 **수필름** 영화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 25길 21

 **CBM 한강방송** 케이블방송
서울 영등포구 양평로 17길 22



집단지성 현장캠프에 다녀온 소감을 짧게 얘기해볼래?

〈이현정(1학년, JTBC)〉

우선 평소에 가보고 싶었던 방송국 안을 견학할 수 있어서 특별한 시간이 된 것 같아. 각 분야별 선배님들을 뵈고 자세한 이야기 들을 수 있어서 좋았어.

〈공유나(1학년, 뉴스타파, KBS)〉

우선 나는 뉴스타파보다는 KBS가 궁금했어. 그래서 이번 집단지성 프로그램을 통해 내가 가보고 싶은 회사에 다녀올 수 있었고, 또 졸업생 선배님들과의 만남에서 다양한 직업에 따라 그에 대한 직업환경을 직접 들을 수 있어서 한층 성장해갈 수 있게 된 좋은 기회였던 거 같아!

〈옥지원(1학년, 대학내일, 제일기획)〉

사실 처음 서울 올라갈 때에는 너무 멀고 힘들어서 가지 말걸 후회도 했지만 가보니 너무 재미있고 유익했었던 거 같아! 대학내일 에디터분들과의 대화는 꿀~잼 유익함의 끝판왕!

〈장보람(2학년, 경향신문, 한국언론진흥재단)〉

일단 서울이 넓다는 것을 다시금 깨달았어. 한편으로는 현타가 오기도 했고, 대한민국의 중심은 이렇게 넓는데 나는 좁은 시선으로만 내 것을 하고 있는 건 아닌지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던 거 같아. 특히나 선배님들을 만나면서 더더욱 그런 생각이 들었어. 자신의 꿈을 향해 적극적으로 다양한 경험을 겪거나 콘텐츠를 제작하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했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 나도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개인적으로 한국언론진흥재단에 김위근 박사님을 만났는데, 현재 언론 입사 트렌드를 파악할 수 있었고 그에 맞게 준비해야된다는 점, 자기만의 독자적인 콘텐츠를 제작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는 시간이 되었어!

〈곽미소(3학년, DAYS DAZE)〉

3년 동안 집단지성을 다녀왔고 갈 때마다 현장에서 열심히 뛰고 계시는 분들의 모습을 인터뷰하고 보고 오면서 내가 가고 싶은 곳이 점점 명확해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어. 1학년 때의 저는 그저 방송국으로 들어가고 싶다는 불명확한 장래희망을 항상 말하고 다녔다면 지금의 나는 집단지성을 통해 제가 어느 곳을 들어가고 싶고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 구체적으로 말할 수 있는 학생이 된 것 같아.

〈유희미(4학년, AVA엔터테인먼트, CBM 한강방송)〉

4년간 집단지성 현장캠프에 참여했는데, 매년 감회가 새로웠던 것 같아. 저학년 때는 '이런 회사와 직업도 있구나'라는 마음이었다면, 취업의 문에 서 있는 지금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직업에 대해 물어보고 알게 된 것 같아.



집단지성 기간 동안
기억나는 에피소드가
있었다면?



직접 경험해본
집단지성이라는 프로그램
어떻게 생각해?



에피소드

〈공유나 (1학년, 뉴스타파, KBS)〉

여러 가지 일이 있었지만 가장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는 3가지가 있어! 첫 번째는 우리가 여의도 KBS에서 조원들을 기다리는 도중에, TV에 나오시는 기자님들이 차 안에서 내리시는 걸 담장 넘어 힐끗힐끗 신기해하며 보고 있었어. 그런데 갑자기 한 분은 카메라를 들고 또한 분은 마이크 또 다른 분은 수첩을 들고 우리에게 여기 어쩐 일로 왔냐고 물어보시길래 집단지성이라는 행사로 각자 가고 싶은 회사 구경하러 왔다고 말씀드렸더니, 오늘 아침에 눈이 잠깐 왔었는데 그 기분을 이야기 해달라고 인터뷰 요청을 하시는 거야! 그래서 인터뷰해드리고 물어보니까 KBS 9시 뉴스에 나오는 인터뷰 장면이었던 거야. 설마 진짜 인터뷰로 쓰겠어? 했는데 정말 KBS 9시 뉴스에 나오게 되었어! 두 번째는 졸업하신 선배들과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는데, 나는 06학번 김정우 선배와 이야기할 수 있었어. 선배님께서 자신의 직장 이야기보다는 저희 각자 나름대로의 인생에서 정말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고 책을 많이 읽어라고 인생의 조언을 해주셨어. 선배님 인생도 너무 좋으셨고 뜻깊고 감사한 시간이었어! 마지막 에피소드는 우리가 집단지성 간 날짜가 학술제 연습에 한창일 때였어. 연습하면서 서로에게 공한 것도 있고 불만도 있는 상태에서 간 집단지성이라 서로같이 방을 쓰면서 처음에는 조금 불편하기도 했는데 첫째 날 밤 둘째 날 밤에 서로 같이 지내면서 서로에게 공해있던 것도 이야기하고 서운했던 점이라던지 시간가는 줄도 모르고 이야기했던 것 같아. 첫째 날 밤에도 5시쯤에 자고 둘째 날 밤에도 4시 넘어서 잤었나.. 그렇게 풀고 나니까 지금은 정말 잘 지내고 있어)

〈장보람 (2학년, 경향신문, 한국언론진흥재단)〉

실무자들을 인터뷰하면서 있었던 에피소드는 딱히 없었지만 숙소에서 조원들끼리 지냈던 시간이 인상 깊었던 거 같아. 특히 14학번 김나영 선배님과 굉장히 많은 대화를 나눠서 좋았어. 영화 취향이나 좋아하는 배우가 굉장히 비슷해서 사랑의 감정을 느꼈던 거 같달까. (진지) 그리고 또 눈이 왔잖아? 밖에 눈 구경을 하러 가기도 했어. 참고로 동기인 김설이랑 두 번째로 첫눈을 함께 맞이해버렸어. 저희 오래갈 거 같습니다. 축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곽미소 (3학년, DAYS DAZE)〉

매번 집단지성을 갈 때마다 작은 선물을 준비해서 인터뷰를 해주시는 분께 전달해드리는데 이번에도 선물을 사서 들고 갔지만 그것만으로는 너무 부족하다고 생각해(우리가 정말 어렵게 인터뷰 기회를 잡은 프로덕션 PD님이라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들었기 때문에 친구들도 모두 이것만으로는 선물이 부족하다! 라는 한마음 한뜻이었어) 카페에서 PD님이 드실 음료를 우리가 계산하자라는 결론이 났어. 그래서 카페로 들어가서 저희가 계산을 하겠다 실랑이를 벌이다 결국 PD님이 회사 카드라며 PD님의 카드로 긁어버리신 거야. 나중에 우리가 아쉬워하자 웃으면서 회사에서 내는 거라 자기 돈도 아니라며 우리 프로덕션은 이런 밥 먹는 것에 아끼지 않는다고 말하며 자연스레 프로덕션의 장점을 말해주시자 그제야 우리가 고개를 끄덕이며 편안한 마음으로 인터뷰를 진행할 수 있게 된 점이 너무 재밌던 에피소드였던 거 같아!

〈조은진 (4학년, 대학내일, BUKU)〉

우리 팀이 참여했던 공모전 중에 진행했던 특강에서 연이 닿아 대학내일의 정은우 소장님을 뵈 수 있었어. 여름에 짧게 특강에서 뵈고 처음 뵈는 거라 많이

긴장했었는데, 팀원들 이름도 기억해주시고 맛있는 점심도 사주셨어. 커피를 같이 마시면서 더 많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던 거 같아. 같이 간 팀원들이 다 4학년 이제 취업전선으로 뛰어 들 시기의 친구들이라 사실 더 현실성 있는 질문을 많이 드렸는데, 정말 가슴에 새길만한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셨어. 직업을 선택할 때 고려해야 할 것들이라던지, 직업에 대한 사소한 부분까지 얘기해주시기도 하셔서 그때가 가장 기억에 남는 거 같아. 명함을 못 들고 오셨다며 종이에 써주신 멋진 명함도 기억이 나네.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사 먹었던 겨울 첫 봉어빵이 아직 잊혀지지 않는다. 아아~ 종로의 봉어빵이여.

〈김설이 (2학년, 영화사 수필름)〉

피디님과 인터뷰 과정에서 전해 들은 이야기 중 기억에 남는 촬영 에피소드가 있어. 영화 당신, 거기 있어줄래요의 비하인드 스토리쯤 되겠네. 돌고래쇼를 직접 훈련사에게 훈련을 받아 연기했던 여배우 이야기, 배우 김윤석 씨의 촬영 도중 소리 지른 이야기 등 그 장소에 있지 않으면 들을 수 없는 이야기들을 함께 듣고 웃었던 기억이 나. 또한 PD님과 함께 대화하던 시간들이 모두 유쾌하고 즐거워서 우리 기억에는 가장 인상 깊은 에피소드로 남았었어!

집단지성이라는 프로그램 어떻게 생각해?

〈이현정 (1학년, JTBC)〉

내년 집단지성 때는 **명확한 꿈을 세우고** 그것에 맞는 회사를 섭외해서 더 다양한 것들을 경험해 봐야겠다고 생각했어. 또 졸업생이신 방송작가 일을 하고 계시는 선배와의 대화를 하면서 현실적이고 솔직히 말씀을 들을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던 거 같아.

〈공유나 (1학년, 뉴스타파, KBS)〉

1년에 한번 참석해볼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것 같아. 아무래도 내가 가보고 싶은 직장을 구경하고 그 직장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실무자에게 직접 듣는 것** 자체가 쉬운 기회는 아니잖아? 그래서 본인의 꿈을 조금 더 구체화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

〈옥지원 (1학년, 대학내일, 제일기획)〉

집단지성 프로그램이 아니라면 언제 내가 또 이런 경험을 할 수 있을까? 내년에 또 참여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

〈우혜정 (1학년, 대학내일, 제일기획)〉

집단지성을 처음 접했을 땐 생소한 느낌이 컸어. 직접 회사에 연락을 섭외한다는 쉬운 일은 아니었으니까. 다양한 곳에 섭외를 넣는 것은 어렵고, 힘들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어. 그치만 **섭외하고 싶은 곳 섭외를 성공하여 그 분야에 대한 얘기를 듣다**보니, 이렇게 값진 이야기들을 내가 단지 힘들고 귀찮아서 놓칠 뻔했다는 생각이 들었어. 집단지성 프로그램에서 우여곡절도 많았지만 그만큼의 선물을 얻을 수 있었다고 생각해!

〈장보람 (2학년, 경향신문, 한국언론진흥재단)〉

일단 실무자를 만날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긴장되면서도 설레기도 했던 거 같아. 그리고 내가 하고 있는 활동이나 일이 내 진로와 연관이 있는지 다시 돌아보게 된 계기가 되었어. 다만 마음이 조금해졌다고나 할까? 내가 가고 싶은 직장이나 시장의 트렌드는 이런데 나는 너무 늦게 깨닫고 하는 건 아닌지, 빨리 준비를 해야 하는 건 아닌지, 내가 이 직업 혹은 이 회사에 대한 정보를 늦게 파악하는 건 아닌지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앞서 얘기한 것처럼 내 커리어를 다시 돌아보게 된 계기가 바로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깨달았다는 걸 말하고 싶어.

〈곽미소 (3학년, DAYSDAZE)〉

학과 생활을 하면서 가장 힘들기도 했고 재밌기도 한 프로그램이 집단지성이라고 생각해. 물론 나의 꿈을 먼저 이뤄주신 선배님들을 만나러 가는 길은 늘 설레고 재밌지만 그만큼 현실적인 이야기를 듣고 오면 내가 더 잘 할 수 있을까, 나는

내가 더 잘 할 수 있을까, 나는 정말로 그 길로 걸어나갈지도는 걸까, 라는 마음이 항상 들었어. 하지만 그런 현타를 받고 학교로 돌아오면 늘 나는 학교 안에서 더 바쁘게 돌아다녔던 것 같아. 내가 그 꿈을 이루려면 무슨 행동을 제일 먼저 해야 하는지 집단지성에서 배웠고, 얻어왔기 때문이야 아닐까.

꿈이 모호한 친구들에게 어떻게 보면 집단지성은 날카로운 칼과 같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 칼에 찔려서 아프게 현실이 다가오기도 하고 내가 이렇게 해 놓은 게 없었구나.. 하며 자책하는 마음이 들 수도 있으니까. 하지만 그 칼이 스스로를 그렇게 깊게 찌르지는 않는다고 생각해. 내가 학교 안에서 열심히 배우고 활동하는 것으로 치료만 한다면 그 상처는 언제 그랬냐는 듯 다나아서 새살이 솔솔 돋아나기 마련이니까. 집단지성을 갔다 와서 자신감을 잃기보다는 아, 내가 부족한 부분은 이 부분이구나. 더 채워나가야지.라고 생각한다면 집단지성은 더 할 나위 없이 좋았던, 성공한 집단지성이라고 생각해.

〈조은진 (4학년, 대학내일, BUKU)〉

4년 동안 집단지성이라는 프로그램을 다녀오면서 느낀 점은 ‘정말 다녀오길 잘했다’야. 내가 상상 속에서만, 꿈에서만 그리던 내가 가고 싶은 회사나 만나보고 싶었던 사람들을 실제로 만나는 건 정말 큰 힘이 작용되는 것 같아. 마치 뜬구름을 손으로 꼭 잡는 느낌이랄까. 나도 언젠간 이 회사에 꼭 다녀야지 하는 동기부여가 굉장히 많이 드는 것 같아. 만약 학과에 이 프로그램이 없었다면, 대학교 다니면서 내가 가고 싶은 회사에 가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까 하는 생각도 들더라구. 그만큼 **항상 다녀오면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동기부여도 절실하게 생기는 거 같아. 그래서 꼭 더 많은 친구들이 갔으면 좋겠고, 앞으로도 우리 과에서 이런 좋은 프로그램은 꾸준히 진행해서 학생들이 꿈에 한 발자국 더 다가가게 해줬으면 좋겠어!

광고홍보

마케팅

1인미디어

방송작가

언론

영상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선배들의 이야기

“우리가 솔직하게 모든 것을 말해줄게!”

2017년 11월 22일부터 24일까지 ‘집단지성’이라는 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벌써 6번 진행된 행사라고 하는데요. 집단지성은 각 조끼리 뭉쳐 자신들이 가고 싶은 기업을 방문하는 행사입니다. 각 조끼리 기업을 방문하고 늦은 저녁시간에 언론, 광고홍보마케팅, 영상 등 각 분야별로 일하고 계신 선배님들을 만날 수 있었는데요. 저희 미컴 학우들은 자신이 일하고 싶은 분야 쪽에서 일하고 계신 선배님을 찾아가 직장의 경험 등 많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 집단지성 ‘실무자 라운드 멘토링’에 참여해주신 선배님들이 후배들을 만나고 나서 어떠했는지 선배님들의 후기를 담아보았습니다.



06학번 김정우

kjw5555@erom.co.kr

대구대에서는 단연코 top! No. 1 더 이상 적수가 없는 최고로 잘나가는 우리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후배들을 만날 수 있어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저는 우리 학과에 대한 사랑이 남다른데요, 그 이유는 우리 학과를 통해서 제 삶이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 앞에 서면 언제나 벌벌 떨고 우물쭈물했던 제가 김동운 교수님의 커뮤니케이션 이론을 열심히 수강한 이후로 말 잘하는 남자가 되어서 지금은 한 달에 몇 번씩 동기부여 강의로 하고 다닙니다. 그리고 영화의 영자도 몰랐는데, 미우동아리를 통해서 단편영화도 몇 편 만들어 영화제에서 상을 타는 기적 같은 경험을 했어요. 돌아가셨지만故 엄기열 교수님을 통해서 영어공부도 열심히 하게 되었습니다. 말하려면 너무나 많지만, 우리 학과를 통해서 많은 것들이 긍정적으로 변화되어 항상 우리 학과만 생각하면 감사한 마음이 가득 넘칩니다.

정말 하고 싶은 말이 많아서 입이 근질근질 하지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저는 처진 달팽이의 [말하는 대로]라는 노래를 좋아합니다. "사실은 한 번도 미친 듯 그렇게 달려든 적이 없었다는 것을~"이라는 가사가 제 마음을 강하게 터치합니다.

후배님들 어떤 분야든 상관없습니다. 지금 어떻게 살고 계시는가요? 열정을 가지고 미친 듯이 달려본 적이 있으세요? 없다면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젊은 사람이 가장 아름다울 때는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할 때입니다. 뭇 모르고 실수해도 좋습니다. 그냥 한번 무섭게 뭐든지 집중해 보세요. 실수하다 보면 바른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생기가 넘치는 후배들을 보니 정말 좋았습니다. 저는 집단지성 졸업생 특강에서 아래 8명의 친구를 만났습니다.

영화 패왕별희를 좋아했던 14학번 김나영 후배님
시집 시밤(ㅋㅋ)을 좋아했던 15학번 최수미 후배님
책 참 소중한너를 좋아했던 16학번 손민정 후배님
그리고 낙서가 취미인 17학번 이다혜 후배님
영화 Desert flower를 좋아했던 17학번 이효린 후배님
영화 메이즈 러너를 좋아했던 17학번 김효영 후배님
드라마 낭만닥터를 좋아했던 17학번 공유나 후배님
영화 범죄도시를 좋아했던 17학번 박준민 후배님

저희 조는 "인생 조"라고 이름 지었어요. 인생에 대해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부분 세 가지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눴거든요. 조금만 말해도 척척 알아듣는 우리 후배들 정말 멋졌습니다. 이번 집단지성 실무자 졸업생 특강은 저에게는 정말 보람되고 뜻 깊은 시간이었어요. 다음에 또 기회가 된다면 후배들을 뵈고 싶습니다. 또 불러 주세요~

추신: 제가 대학 시절로 다시 돌아간다면, 책을 400권! 읽을 겁니다. 1학년 때 인문고전 자서전 100권! 2학년 때 자기관리 100권! 3학년 때 내가 가장하고 싶은 분야 100권! 4학년 때 비즈니스 기업창업에 대해서 100권!



10학번 김용준

yongjun0830@gmail.com

2016년 11월 대학교 4학년, 집단지성 캠프로 서울에 갔던 것이 엇그제 같은데, 벌써 1년이 지났네요. 작년에 학생 신분엔 집단지성을 갔을 때는 일하고 던 선배들이 굉장히 부럽고 나에겐 오지 않을 일처럼 느껴졌는데 이번에는 졸업생으로 참여하게 되었네요.

처음 졸업생 선배들과 재학생들과의 대화 자리에 초대받았을 땐 '아직 사회초년생인데, 내가 가서 해줄 이야기가 있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저도 한참 배워야 하는데 어떤 이야기를 할지 고민이 되더라구요. 그런데 내가 이것만큼은 이야기 할 수 있겠다 싶은 것이 있었어요. 바로 취준생이나 대학생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 저는 무려 올해 초 까지만 해도 재학생 분들이랑 비슷한 처지였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선배들 보다 여러분의 마음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했어요.

언제 제가 취업을 하고 있을 한 3,4개월 차 때인가 친한 후배가 저한테 물어보더라구요. "선배 학교에서 배운 것들이 쓸모 있어요?" 라는 질문을 했어요. 일단 어떤 업무를 하는지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도 있지만 저는 반드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편이에요. 재학생 여러분들이 일하고 싶은 분야가 흔히 방송영상, 광고홍보마케팅, 언론분야라고 생각하는데, 기술적인 부분은 일을 시작하고 3개월이면 충분히 배울 수 있어요. 그 외 내적인 부분은 학교 때 탄탄히 다져 놓아야 해요. 여기서 내적인 부분이 흔히 이야기하는 각자의 인사이트가 되는 것이죠. 단순히 기술만 좋다면 그것에서 끝나지만, 인사이트가 있는 사람이면 그것을 활용해서 다양한 것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들의 목표는 단순히 취업이 아니라 취업을 통해서 무언가를 하는 게 목표이고 꿈이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너무 공부만 하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공부도 놓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하고 싶은 것에 배운 것을 접목하다보면 공부가 재밌어지는 신기한 현상을 발견할 수 있어요.

두 번째로는 4학년 친구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데, 이 이야기는 조금은 현실적인 이야기예요. 이제 막 이력서나 자기소개서를 쓰고 있거나, 혹은 이미 몇 차례 이력서를 써본 사람들도 있겠죠? 자기소개서를 쓰는데 이게 맞는 가 싶고, 지원한 곳에서 불합격 통보를 받으면 뭐가 문제인지 알 수는 없고 진짜 한창 불안할 때라고 생각해요. 일단 불안해하지 말라는 말은 하지 않을게요. 그건 제가 이야기한다고 해서 불안감이 없지는 것도 아니고 스스로가 극복해야 하니까요. 저 같은 경우는 인문학 책을 읽으면서 나름 불안감을 극복했던 것이 기억이 나네요. 제가 인턴때 느낀 건데, 회사의 상사 분들은 처음부터 저한테 큰 기대를 하고 있지 않았어요. 일을 계속 하게 되고 업무량이 많아지면서 기대를 하시기대를 하시기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죠. 즉 처음 일을 하는 사람은 자기소개서에 업무적인 내용을 쓰기보다 해왔던 경험을 통해 "나는 이러한 사람입니다" 라고 쓰는 게 더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의 경험이 자신에게 어떤 인사이트를 만들어 주었는지 알려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이건 제 경험담인데, 자기가 생각했던 회사를 지원해서 불합격이 되었다면 한 단계 눈을 낮춰보는 것도 좋아요. 언론은 모르겠지만 방송, 영상 광고 홍보 마케팅 분야에서는 경력직에 대한 니즈가 산업의 니즈보다 높기 때문에 경력을 쌓고 원래 원했던 회사로 가는 방법이 있어요.

생각보다 말이 길어졌네요. 재미없는 글을 읽어 주신 분들께 감사드려요. 사실 저도 이번 선배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많은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취업 전에는 내가 취업해서 정말 능동적으로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는데 하는 생각을 했었지만 약 1년이 다 되어 가면서 생각보다 일이 수동적으로 변했더라구요. 재학생 분들을 보면서 타성에 젖어 있던 저를 볼 수 있었어요. 이제는 재학생 학우들의 기를 받아 다시 한 번 능동적으로 도약하는 모습을 보여드릴까요. 제가 일하는 분야가 광고마케팅 분야인데 생각보다 인력 시장은 좁더라구요. **앞으로 서로 끌어주고 밀어줄 수 있는 그런 선배배가 될 수 있도록 다들 파이팅 합시다!**



10학번 김준근

010-8537-3953

첫 번째, 일단 하고 싶은 걸 했으면 좋겠어요.

놀고 싶으면 놀고, 일하고 싶으면 일해보고, 무엇이 되었건 하고 싶은 게 있으면 해보세요. 모든 것이 경험이니깐. (단, 범법은 안 했으면 좋겠네요. 물론 이것 또한 경험이겠지만)

두 번째, 할 수 있을 때 하세요.

이것저것 따지다 보면 그냥 허송세월 시간 낭비일 뿐, 해보고 아니다 싶으면 돌아오면 됩니다. 아직 학생이고 돌아온다고 욕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돌아오는 길에 배고프면 연락하세요, 밥 한 끼는 사줄 능력 있는 선배니까! 010-8537-3953, 10학번 김준근)

세 번째, 영어는 꼭 하세요. 제가 지금 후회하는 딱 하나는 영어입니다!

흔히들 이야기하는 연봉 높고, 주말 쉬며, 안정적인 중견 기업 이상의 일을 선호하는 후배들 현실적으로 공부하셔야 합니다. 특히 영어는 토익, 토플, 실용회화 등 검증받을 수 있는 영어 성적이 있어야 해요. 저는 다른 건 다 괜찮은데 영어 공부를 소홀히 해서 조금 답답해요. 영어를 조금만 더 신경 썼으면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더 많이 할 수 있을 텐데... 그래서 저는 뒤늦게나마 영어회화를 시작해보려 합니다. 저도 아직 사회에서 어린아이라 여러분들에게 어떤 정답을 줄 수는 없지만 적어도 여러분의 이야기는 진지하게 들어 줄 수 있으니까^^언제든지 연락하세요. 끝으로 방송·연출 (시사·교양PD)에 일해보고 싶은 후배는 언제든지 연락해도 환영합니다!

그리고 이슬로건을 꼭 알아줬으면 해요! 상상 초월 신문방송 우리는 미쳤다

미친사람한테 장사 없다는 말은 거짓이 아니에요!

황설수설 말이 많았네요.

이제 곧 방학일 텐데 여행 가는 친구, 아르바이트하는 친구, 연애하는 친구, 학교에 있는 친구 등 서로 다른 장소와 경험을 할 많은 후배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지금 이 순간 하고 싶은 것을 하는 일 만큼 행복한 것은 없을 거라고 저는 확신해요.

그게 술 먹고 놀고 싶은 것이라고 할지 언정.

당신을 응원하는 사람들은 생각보다 많으니까 오늘 하루도 고생했고! Fighting입니다!

All About 학술제

모두가 별이 되어
함께 빛나는 미컴의 밤

2017
미커뮤니케이션
케이블 술제
학 : 華 夜

화 야

랩실 성과 발표 | 1학년 연극 | 현직 선배들과의 멘토링 | 경품추첨

일시 12월01일 늦은 6시

장소 사회과학대학 2호관 구강당 드레스코드 블랙&화이트

COMM ON

2017
미커뮤니케이션
케이블 술제
학 : 華 夜

화 야



랩실 성과 발표 | 1학년 연극 | 현직 선배들과의 멘토링 | 경품추첨

일시 12월01일 늦은 6시

장소 사회과학대학 2호관 구강당 드레스코드 블랙&화이트

COMM ON

학술제란?

대구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와 매해 진행되는 행사로, 우리의 1년을 되돌아보자는 취지를 담고 있다.

올해 학생회와 랩실이 어떤 활동을 해왔는지 발표하는 자리이며,

멋진 성과 혹은 끈기와 열정을 보여준 학우에게 공로를 높게 인정하는 자리이기도 하다.

그중 가장 멋진 시간은 새내기 1학년들이 시나리오부터 무대 연출과 연기까지 도맡아 진행하는 연극이다.

조금은 어색하고 서툰 모습이 보여도 이들의 노력이 한 편의 연극으로 다가오는 시간은 일 년의 시간 동안

새내기들의 땀과 열정을 집약적으로 보여준다.

따뜻했던 봄을 지나 어느새 일 년의 끝자락을 앞두고 있습니다.

저희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에서는 소중한 1년을 추억하고 되새겨 보기 위해 학우들과 함께 하는 자리를 가졌는데요.

이번 2017년 학술제는 ‘모두가 별이 되어 함께 빛나는 미컴의 밤, 화야(華夜)’라는 주제로 학술제의 막을 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빛났던 2017. 12.1 미컴 학우들이 빛났던 그 날을 저희 ECHO에서 다시 추억해 보고자 합니다.

늘 그래왔듯 이번에도 1학년 학우들의 멋진 연극이 진행되었는데요.

이번 1학년들은 ‘같이의 가치’라는 주제로 학술제 연극연습 준비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갈등과

그 갈등 속에서 같이의 가치, 즉 함께하는 것에 대해 깨닫는 것을 연극으로 보여주었습니다.

ECHO는 대본을 썼던 시나리오팀, 연극에서 필요한 소품을 준비했던 연출팀,

인물의 배역을 연기해주었던 연기팀 중 각각 한명씩 인터뷰를 해보았습니다.

1학년의 마지막 행사를 끝낸 17 학우들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1.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 저는 시나리오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이나현입니다. 안동에서 왔어요.

- 안녕하세요, 저는 연출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17학번 장연대입니다.

- 안녕하세요, 저는 연기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17학번 김효영입니다.

2. 이번 학술제 연극 준비를 하면서 힘들었던 점이 있다면?

- 이나현: 힘들었던 점... 아주 큰 거 한 가지가 있었는데, 연극 준비하는 과정에서 의견 차이 때문에 많이 부딪혔어요. 그래도 학술제가 끝나고 나서 조금씩 풀리고 있고요, 아! 시나리오 쓰는 사람으로서 시나리오를 많이 수정하는 게 힘들었어요.

- 장연대: 여러 힘든 점이 있었지만 그중 가장 크게 힘들었던 점은 각팀마다 바라는 점이 있었고 서로 그것을 수용하는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한계 때문에 서로 간 충돌이 있어 힘들었습니다.

- 김효영: 일단 제가 대사 비중이 많았는데 대본이 자주 수정되고, 수정되고 하다보니까 대사 외우는 것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제 대사에 독백장면이 많았고, 다른 친구들과 대본대로 맞추면서 어떻게 하면 더 잘 표현이 될지 생각하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저희 모두가 다같이 힘들었죠.

- 장연대: 제가 다른 팀 하는 것을 슬쩍슬쩍 보러 갔는데 분위기가 험악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출팀은 ‘행복연출팀’이라는 슬로건을 걸고 ‘우리 연출팀은 싸우지 않는다. 우리는 행복하다’라는 말을 계속 하며 서로 웃으면서 진행한 기억이 있다.

- 김효영: 계속 늦게 모여서 밤까지 연습을 하고 그 다음날 아침에 수업을 들으러 가면 피곤하잖아요. 그 피로가 누적된 상태에서 또 다시 연습을 하니 제 연기에 피곤한 게 드러나더라고요. 대본에 오늘은 아현이가 퇴원하는 날이에요.” 하며 밝게 연기를 해야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저도 모르게 “아.. 오늘은 아현이가 퇴원하는 날이에요.” 하며 처지고 힘이 빠지는 거예요. 저도 저 나름대로 힘이 빠지는데 총괄은 워낙 밝은 역할이라 총괄의 하이텐션을 유지해야 한다는 점이 힘들었습니다.

3. 연극을 준비하면서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다면?

- 이나현: 학술제 한다는 이야기를 중간고사 2, 3주 전에 들었어요. 학술제는 한 달 가량이 남아있었는데, 선배들이 시나리오를 빨리 쓰는 게 저희가 준비하는 과정에서 좋다고 그러셨어요. 시험 전인데도 불구하고 다 같이 모여 밤을 새서 시나리오 완성을 시켰는데 통과는 못했어요. 그리고 시험 끝나고 나서 또 밤을 새서 일단 통과되긴 했는데, 동기들 사이에서 의견 차이가 계속 나서 여러 번 수정과정을 거쳤어요. 그 과정 속에서 서로 조금 마음이 상해서인지 사이가 멀어졌죠. (지금도?) 지금은 사이가 조금 좋아졌죠. 웃음 (아직 풀리는 과정?)





4. 시나리오, 연출, 연기를 맡게 된 큰 이유?

- 이나현: 저는 글 쓰는 걸 좋아하고 드라마 작가를 꿈꿔요. 지금은 조금 다시 생각해보려고 하지만... 일단 꿈 관련한 무언가를 해보고 싶어서 시나리오를 맡게 됐고요. 네, 정말 후회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웃음 (연극 내용이 학술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꿈과 관련한 역할을 하려는 내용인데, 나현 학우의 이야기가 그대로 반영이 된 거군요?) 그렇죠. 동기들과 회의를 하다 보니 그렇게 되긴 했는데, 잘 표현된 거 같아 기쁘네요

- 장연대: 이유라면 그 무대를 제가 연출했다는 것과 제가 만든 그 무대에서 배우들이 자신 있게 연극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연출을 맡았습니다.

- 김효영: 과대의 역할이 컸던 것 같아요. 저도 물론 학술제를 하면 열심히 참여할 의향이 컸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본가에서 자고 있었는데 과대오빠가 “효영아 너가 총괄이야, 너가 해야만 해” 라고 하는 거예요. 갑작스레. 당황스러웠지만 “네, 제가 해야죠, 할 수 있어요!” 라고 하며 일단 맡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계속 하다 보니까 책임감이 많이 생겼습니다.

5. 1학년의 공식적인 행사가 끝난 기분?

- 이나현: 음, 생각보다 막 기쁘지도 않고, 후회되지도 않고, 아무 생각이 안 들어요. 그냥 너무 빨리 지나갔다? 네, 진짜 빨리 지나간 거 같아요. 활동하던 당시에는 힘들기도 하고 짜증도 많이 났는데, 끝나니까 굳이 그렇게 생각했어야 했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까지 찍었던 사진들을 보니까 생각보다 제가 많은 활동들을 했더라고요. 조금 아쉬운 건 선배들과 같이 활동하는 게 더 많았으면 좋을 거 같아요. 저희는 이제 일학년만 지난 거고, 휴학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만 따지고 보면 3년이라는 시간이 남았잖아요. 앞으로 선배들과 동기들, 그리고 생겨날 후배들과 어울릴 기회가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웃음

- 장연대: 후련합니다. 새내기가 아니라 현내기로써 18학년 새나기를 바라보는 기분이 어떨까 궁금합니다.

- 김효영: 일단을 학술제가 끝나고 많이 울었습니다. 생각을 해보니까 학술제만 끝난 것이 아니라 2017년도 끝났고 1학년이 끝난 기분에 아쉬웠거든요. 그 아쉬움과 함께 제가 힘들었던 기억이 스쳐지나가서 힘도 많이 빠졌구요.. 그런데 막상 시간이 지나고 생각해보니가 속도 시원하고 2학년은 또 어떻게 하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선배들과의 멘토링 후기

질문하는 순간이 어렵지 않도록, 때로는 재치 있게.

혼자 고민했을 후배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때로는 진지하게.

이번 학술제에는 '화야'를 더욱 더 빛내줄 여섯 명의 선배가 멘토로 초대되었다.

PR, 사진, 홍보, 기자, 영상, 마케팅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는 선배들에게 시작부터 많은 질문이 쏟아졌고

이 질문들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받기 위한 common 학생회의 세심한 아이디어도 돋보였다.

바로 '카카오톡 오픈채팅'으로 질문을 받아 무대 뒤 화면에 창을 띄어놓고 진행하는 방식이었다.

최대한 빠르게, 그리고 많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을 수 있었던 덕분에 학과에서 종종 있었던

멘토링 시간 중 가장 활기찬 멘토링이 아니었나 생각해본다. 꿈을 향한 첫 걸음을

이제 막 떼기 시작한 1학년들에게는 어땠는지 후기를 들어보자.



이번 '선배들과 멘토링'은 아직 확실한 꿈을 정하지 못한 나에게 조금의 위로가 되었고 앞으로의 대학생활에 대한 다짐을 할 수 있었던 시간이 되었다. 평소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회부 기자일을 하고 계신 민경석 선배님께 궁금한 점을 질문하고 답변을 들었다. '기자는 사건이 발생하면 근무시간 외에도 즉시 현장취재를 하러 가야하나요?'라는 질문에 선배님께서 '이번에 포항에서 지진이 발생했을 때도 즉시 포항으로 내려가 일주일동안 취재를 했다. 정해진 휴가 날이 아닌 경우 외에는 취재를 하러 가야한다.'라고 답변해 주셨다. 일 하시는 현장의 이야기를 생생하고 솔직하게 말해주셔서 큰 도움이 된 것 같다. 그리고 선배들께서 뭐든 많이 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해주셨는데 그 말을 듣고 앞으로의 남은 3년의 대학생활을 헛되게 보내지 않고 다양한 경험들을 많이 하면서 보내야겠다고 다짐하게 되었다. 집단지성을 찾을 때도 졸업하신 선배들과 대화를 할 수 있는 시간이 뜻 깊고 큰 도움이 되었는데 이번 학술제에서도 이런 소중한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나에게 의미 있다고 생각했다. - 17학번 이현정

처음에 나는 '선배들과의 멘토링' 시간에 대해 별 생각 없이 참여했지만 오픈채팅이라는 새로운 방법으로 멘토링을 한다는 것에 흥미를 가지게 되었다. 큰 화면으로 보이는 오픈채팅방에 많은 질문이 익명으로 쏟아졌고 많은 사람들이 질문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 또한 오픈채팅을 통해 질문을 하게 되었다. 그러다가 직접 묻는다는 두려움도 사라지게 되었고 선배와 직접 눈을 마주치며 내 고민을 말하고 싶었기에 직접 손을 들고 질문하게 되었다. 난 평소에도 '지금 내가 잘하고 있는가?'라는 의문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떨리는 마음으로 직접 고민을 선배들에게 말씀드렸고 내 얘기를 들으신 선배들은 내 고민은 당연하다는 말씀과 함께 따뜻한 응원과 조언을 주셨고 그 말씀들이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가?'라는 내 마음 속 의문에 답변이 되었다. 새로운 방법으로 진행된 선배와의 시간, 나에게 큰 도움이 되었던 시간이었다. - 17학번 박준민



학술제멘토링을 한 후...

지난 12월 1일 금요일,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와의 한 해를 마무리하는 학술제가 찾아왔다. 그 중에서도 나의 이목을 끈 것은 물론 우리가 열심히 준비했던 연극과 발표도 있었겠지만, 다양한 직종에 취직해 모교를 빛내는 선배님들이 자리에 참석하신다는 것이었다. 사회부기사를 작성하시는 선배님, 사진을 촬영하시는 선배님, 프로 축구단에서 일하시는 선배님 등 다양한 선배님들이 자리를 빛내주셨다. 나는 어릴 적부터 프로 구단에 입사해서 나의 취미를 미래와 결합하길 원했기에 대구FC 홍보 팀, 07학번 김홍범 선배님의 참석은 내 신경을 '멘토링'이라는 세 단어에 집중시키기 충분했다. 처음에 많은 학우들이 손을 들고 발표하길 머뭇거려 했다. 나도 그 중 하나였기 때문에 누군가가 포문을 열어주길 원했다. 다행히도 시간이 지나자 학우들이 하나 둘씩 손을 들고 질문을 하기 시작했고 나도 질문 기회를 얻는데 성공했다. 평소 막연히 꿈만 가지고 대외활동하는 것에만 집중하고 있었기에 실제로 종사하시는 분께 '프로 구단에서 일하기 위한 덕목'이 무엇인지 여쭙보고 싶었고, 그 기회를 얻고 원하는 답을 얻게 돼 굉장히 뿌듯한 시간이었다. 아쉽게도 선배님들과 함께할 시간이 많지는 않아 머릿속에서 쏟아지는 다양한 질문을 모두 해내지는 못했지만 말이다. 선배님들과 가진 멘토링에서 비단 내가 질문 드린 부분뿐만 아니라 다른 선배님들로부터도 도움이 될 조언을 들으면서 미래를 준비하는 데 있어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한 가지, 나도 6~7년이라는 시간이 흘러 또 다시 한 해를 마무리하는 학술제를 할 때 나도 내가 선배님들에게 느낀 것처럼 그런 선배가 되어 학술제 자리를 빛내야겠다는 결심을 했다. 마지막으로 직접 대면하고 말씀드리지는 못했지만 이 글을 빌어 학술제에 참석해 자리를 빛내주신 선배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 17학번 배웅기

선배들은 말했었다.
우리는 조금 더 빨리 출발한 것뿐이고
항상 너희들과 같은 길 위에 있으니
인생을 경험하고 사랑하면서 언제든지 뒤쫓아 오라고.

어두운 밤 빛나는 당신 유난히 반짝게 빛나는 당신

학술제 베스트 드레서

어두운 밤 빛나는 당신들 '화야'라는 주제로 미디어커뮤니케이션 학과의 학술제는 막을 열었다.
모두들 어두운 밤하늘에 빛나는 무수한 별들이지만 그 중에서 유난히 반짝이는 별들이 있다.
그들은 바로 학술제의 베스트 드레서이다. 올해에도 엄청난 경쟁률을 뚫고 베스트 드레서가 된 3인을 소개하려고 한다.



13학번 홍성혁

1. 학술제 컨셉이 BLACK&WHITE 이었는데 원래 선호하는 색은 무엇인가요?

원래 선호하는 색은 블랙입니다. 밝은 색을 입어 보려했는데 제 얼굴과는 안 맞더라구요. 그래서 어두운 톤으로 옷을 맨날 사다보니, 그중 블랙이 매력적으로 다가 오더라구여 베이직해서 어디든 입기도 편하고요.

2. 평소에는 어떤 스타일의 옷을 즐겨 입나요?

딱히 즐겨입는 스타일은 없어요. 하지만 너무 튀거나 화려한 스타일은 보는 것도 싫고 입는 것도 싫어하는 편이에요. 그냥 깔끔하고 기본적으로 입는 게 가장 좋습니다.

3. 좋아하는 브랜드는 무엇인가요?

닥터마틴이요! 제가 처음 구두를 샀을 때 진짜 발이 아파서 구두를 어떻게 신나했는데, 닥터마틴을 산 이후에 그런 걱정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일단 이쁘니까요.

All
About
학술제

15학번 이경연

1. 학술제 컨셉이 BLACK&WHITE 이었는데 원래 선호하는 색은 무엇인가요?

블랙이나 튀지 않는 무채색 계열의 색을 좋아합니다!

2. 평소에는 어떤 스타일의 옷을 즐겨 입나요?

평소에는 베이직한 스타일인 청바지에 맨투맨 코트, 백팩, 컨버스를 즐겨 입습니다! 그렇지만 베이직 하면서도 심심하지 않게 와이드팬츠나 롱코트로 스타일을 내는 것 같아요!

3. 좋아하는 브랜드는 무엇인가요?

유니클로, 칼하트, A.P.C입니다!



17학번 권재승

1. 학술제 컨셉이 BLACK&WHITE 이었는데 원래 선호하는 색은 무엇인가요?

저는 블랙 화이트도 좋아하지만 네이비를 가장 좋아합니다! 네이비색 스트라이프 셔츠나 니트 그리고 바지는 언제 어디에 입어도 잘 어울려서 애용하는 색입니다.

2. 평소에는 어떤 스타일의 옷을 즐겨 입나요?

평소에 깔끔한 스타일을 선호해요, 가끔 포인트를 주고 싶을 때는 와이드 팬츠나 셔츠와 니트를 레이어드해서 입습니다.

3. 좋아하는 브랜드는 무엇인가요?

제가 생각하기에 깔끔함의 최고봉인 COS와 일본 브랜드 BEAMS를 좋아하고 선호합니다!



어저저나 보너, 트윈룩



이경연 학우와 권재승 학우는 학술제 당일 의도치 않게 비슷한 옷을 입고와 트윈룩을 보여주었다.

와이드팬츠와 흰셔츠를 레이어드한 검은색 니트 목폴라. 학술제 컨셉에서 벗어나지 않은 아주 걸 맞는 코디.

Goodbye,

COMM. ON

학생회장 홍성혁

내년에도 저희와 같은 학생회 아이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께 보이는 모습이 보이려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의 따뜻한 한마디가 그런 노력의 동기부여가 되니

행사가 끝난 뒤에 즐거웠다고 고맙다고 한마디만 해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제는 말할 수 있다!

부학회장 이경연 행사 때마다 술 취한 걸죠? 안 취했어요!

홍보부장 성혜원 홍 회장님 귀에 피가 날 정도로 욕하고 투덜거렸었는데 지금 돌이켜보면 이렇게 잘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도 다 홍 회장님 덕분이 아닐까 생각해요.

그 누구보다도 제일 많이 마음고생, 몸 고생하셨으니까요. :)

총무부장 이신혜 매번 술자리에서 오래 살아남지만 취하고 싶어도 취하지 못하는 집부병 때문에 진짜 힘들었고, 약속시간에 꼭 늦는 우리 가족들 때문에 인내심을 기를 수 있는 한 해였어요

기획부장 김가희 성혁 선배의 홍클라우드! 처음엔 힘들었지만 되돌아보면 좋은 추억이 된 거 같아요!

편집부장 정소운 작년 이맘쯤부터 회의를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성혁 선배가 너무 무섭고 어려워해서 한마디도 못했었어요.

그래서 처음 선배한테 수고했다고 이야길 들은 게 체육대회가 끝나고 있었는데 그때 기분 찜지는 줄 알았어요. 성혁 선배한테 제일 고마워요 처음엔 화도 내보고 투덜투덜 불평도 했었는데 지금 우리 학생회 이런 행복한 분위기 만들어줘서 감사해요, 아 회의록은 기획부가 쓰는 거 아니에요?

1년동안 기억에 남았던 일

부학회장 이경연 너무 많은데 고르자면 새내기들과의 첫 만남?

홍보부장 성혜원 행사 하나하나가 다 기억에 남아요.

신입생 친구들을 만나기 위해 준비하던 때부터 시작해서 개강 콘퍼런스, 영상캠프, 성년의 날, 체육대회, 축제 그리고 학술제까지... 그때그때의 추억이 아직도 선명하네요.

그렇지만 그중에서도 17친구들을 처음 만났던 날과 학술제 날이 의미 있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커먼 학생회로서의 처음과 마지막을 나타내는 행사니까요.

총무부장 이신혜 엠티 때가 제일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엠티 때 제가 사회를 본 것도 기억나고, 저희가 준비한 프로그램에 따라 같이 활동을 하면서 뿌듯했던 것 같아요

기획부장 김가희 오티 기억하시나요? 7명 ~~ 성혁 선배!

초반에 많은 일들이 있었기에 우리가 지금까지 큰 탈 없이 잘 지내온거 같아요 ㅎㅎ

편집부장 정소운 2017년 우리는 7명이었고

당사자들에게 사과하세요! ㅋㅋㅋㅋㅋㅋ



부학회장 이경연 일 년 동안 정말 정말 고생 많이 하신
미کم 이천수 홍희장님, 역대급 홍보부장 미کم 가위손 내
동거녀 성피자님, 학과 체육대회와 야호에 힘써준 야호 주장
체육부장 조포노 조용싯님, 일 년 예산 짜고관리하느라 고생
많았던 총무부장 리신혜님, 묵묵히 자기 일 열심히 하고
힘들었을 텐데 잘 해준 기획부장 영? 키무가히, 홍보영상
찍고 편집한다고 고생 많이 한 눈물 많은 편집부장 유니 일 년
동안 우리들 밑에서 고생한 제주도 소녀 주영이 유쾌한
현정이 포토샵 달인 재승이 목소리 큰 경민이 형 그리고 티티
선배, 성웅 선배, 솔미까지 일 년 동안 함께해서
행복했습니다 마지막으로 17학번 애기들! 일 년 동안 좋은
추억 함께 해줘서 고마워! 늘 응원할게!

체육부장 조용호 복학하고 처음 하는 자리라 부담감이 많았습니다 처음
갔을 때도 그만두고 싶은 생각도 조금 가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일을
하면서 집행부 인원들과함께 있는 시간이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덕분에
군대에서 배우지 못한 부분도 배울 수 있어서 좋았고 학우분들이랑
친해질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책임감이라는 부분과 따뜻한
정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으며 집에 자주 가지 못했지만 가족이라는
정을 여기서 느낄 수 있었다고 자부합니다 1년 동안 기억에 남은 일을
하나 뽑지는 못하겠습니다 하루하루가 모두 기억에 남을 만큼 행복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잊지 말자
모든 추억 기억들 잊지 말았으면...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홍보부장 성혜원 잘 다가가지도 못하고
무뚝뚝했던 부장이었지만 올 한 해 큰 탈
없이 잘 따라와 준 17친구들에게 고맙다는
말을 하고 싶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COMM.ON 학생회!!함께 지내면서 배울
점도 많고 든든한, 참 좋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항상 고마웠고
어디서든 빛날 우리 COMM.ON 가족들,
제가 늘 응원할게요 사랑합니다♡

총무부장리신혜 모두들 부족 했던
COMM.ON 잘 따라줘서 고맙고, 정말 진짜
고맙다고 한 번 더 감사하다고 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관중 15 행사마다
참여해줘서 너무너무 고맙고, 올 한 해는
힘들기도 했지만 정말 소중하고 잊을 수
없는 추억들이 많이 생긴 것 같아 너무
기뻐요.

기획부장 김가희 진짜 1년 동안 다들 수고
많았고 제가 표현을 잘 못했지만 하나하나
다 기억에 남고 다 감사하고 1년이 끝이
아니라 오래오래 연락하고 지냈으면
좋겠어요

편집부장 정소윤 처음 임원을 정할 때,
고민을 정말 많이 했어요. 그때 제 이야길
들어주고 설득해준 경연 혜원 선배가
없었더라면 지금 전 그냥 재학생일 뿐
이었을 거예요.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이야기하면서 몰랐던 나의 모습도 알게
되었고 오래도록 곁에 두고 지내고 싶은
사람들이 생겨서 너무 행복해요. 우리의
추억을 생각하니깐 또 눈물이 앞을
가리네요 킁킁 그냥 진짜 행복했던 한
해였어요.2017년 커먼 학생회와 함께여서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 다들 막내
유니 챙겨줘서 고맙고 앞으로 하는 모든
일들 응원할게요 사랑해요♥

C

communicating

현 학생회와 차기 학생회에게 바란다.

신문방송학과는 2017년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이름으로 새롭게 출발했다. 1999년 언론매체학과, 2001년 국제사회언론학부, 2006년 신문방송학과에 이어 11년 만의 학과명칭 변경이다. COMM.ON 학생회는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이름으로 첫 출범한 학생회이기에 자부심을 안고 학과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학생회의 새로운 변화를 갈망하는 구성원의 기대에 부담과 책임감이 공존했을 것이다. 학생회는 학과 행사에 구성원 참여가 저조하다는 점을 확인하고, 학생 참여 확대를 우선시 과제로 채택했다. 때문에 오고 싶은 행사를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고민했다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새로운 패러다임의 뉴미디어를 활용하여 홍보의 변화를 보여 주었다.

학과 특성을 살려 페이스북 학과 페이지에 텍스트 중심의 홍보가 아닌 매 행사 때마다 포스터와 동영상을 제작해 공개했다. 특히 홍보 동영상은 기획 회의부터 출연진 섭외, 촬영과 편집까지 상당한 시간을 들였다. 늦은 밤까지 개인사비로 저녁 끼니를 해결하고, 심지어 주말까지 반납했다. 학생회의 노력은 결국 구성원의 참여를 이끄는 큰 원동력으로 작용했을 것이다. 아울러 타 학과 학생과 입학 고민하는 진학생에게 우리 학과를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됐을 것이다. 이밖에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땀 흘리며 묵묵히 일해 준 학생회에게 격려의 박수를 보내주고 싶다. 갈등 속에서 해매고, 알아주지 못해 억울하고 섭섭한 일들이 많았겠지만, 학과 구성원의 기동인 학생회에게 고맙다, 수고했다는 말 한마디를 전해보는 건 어떨까?

그러나 큰 아쉬운 점도 존재한다.

생회비 사용내역 공개는 현 학생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까지 역대 학생회가 제대로 공개하지 않았다.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학생회칙에는 학생회비는 분기마다 의무적으로 공개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1년에 2회에 걸쳐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시험이 끝나는 시점에 공개해야 한다. 워드로 임의 작성한 사용내역만을 출력해 공개하거나 통장, 예산장부, 영수증은 학회장이나 총무부장에게 별도로 연락해 열람을 할 수 있는 무책임한 방식은 즉시 중단되어야 한다. 아울러 현 학생회가 신입생으로부터 수금한 천만 원이 넘는 학생회비 사용내역을 규정에 따라 공개하지 않은 점은 책임을 피할 수 없다. 우리는 지난 학기에 모 학과의 학회장이 500만원이 넘는 학생회비를 횡령했다가 탄핵된 사건을 목격한 바 있다. 투명한 공개가 잔류 의혹을 해소할 수 있기에 학생회비 사용내역은 규정에 의해 철저히 공개되어야 한다.

지난 3월 9일 학생회는 개강 콘퍼런스 자리에서 통장, 예산장부, 영수증을 포함한 학생회비 사용내역을 매월 학과 홈페이지 학생회 게시판에 공개하기로 선언한 바 있다. 공개시한이 지나자 내부에서도 공개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었으나, 학생회는 매번 침묵으로 응답했다. 지난 11월 20일 2018학년도 학생회장 자격심사와 함께 열린 총회(학생회 결과보고)에서 학생회는 파워포인트로 작성한 사용내역을 처음 공개했는데, 세부적으로 낱알이 공개한 것이 아닌 연관이 있는 사용내역을 묶어 개별 사용내역을 확인할 수 없게 공개했다. 또한 통장, 예산장부, 영수증을 앞에 비치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했으나, 일정이 진행되는 데 시간상 어떻게 볼 수 있는가? 줄속 조치로 밖에 이해할 수가 없다. 지금이라도 지난 학생회비 사용내역(통장, 예산장부, 영수증)을 약속대로 한꺼번에 학과 홈페이지 학생회 게시판에 게시하여 구성원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대의원회 감사결과도 통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역대 학생회와 현 학생회의 잘못된 점을 교훈삼아 앞으로의 학생회에게 제안한다.

첫째

학생회칙에 의거 분기마다 통장, 예산장부, 영수증을 스캔하고
사용내역 문서를(한글 또는 엑셀) 생성해 학과 홈페이지 학생회
게시판에 공개할 것. 학회장과 총무부장 외에도 부차장이 예산
지출 흐름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할 것.

둘째

신입생의 학생회비는 부모님의 피와 땀으로 받은 소중한
공금이며, 자녀가堂堂하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믿음으로
학생회에게 납부한 공금이기에 불필요한 지출이 없도록 할 것.
(매년 학생회가 바뀔 때 마다 학회실 벽에 학생회 로고나
슬로건을 페인트로 새기는 공금낭비 사례, 대학본부·총학생회·
단과대학 학생회를 비롯한 학생자치기구에서 시험기간 행사
목적으로 간식을 나눠줄 때도 불구하고 학과 학생회에서도
간식을 구입하는 공금낭비 사례, 일회성 행사에만 착용할 학생회
집행부만의 유니폼을 구입하는 공금낭비 사례 등)

셋째

학생회가 관리하고 있는 학생회칙 원본을 학과 홈페이지 학생회
게시판에 공개해 유실과 임의 변경의 위험을 차단할 것.

내부비판을 적극 수용하여 발전하는 학생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아울러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구성원을 위해
봉사하는 학생회에게 감사와 무궁한 발전을 기원한다.

새해 첫날 듣는 노래가 1년 당신의 이라면?

2017년 ECHO는 '새로운 시작'이라는 주제로 봄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ECHO의 봄을 만들어간 따뜻한 시간도 엇그제 같은데 어느새 2017년 끝자락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새해 첫날 듣는 노래가 그 사람의 1년이다'



라는 말을 들어 보셨나요?. 그래서 우리 미컴 학우들은 2018년 새해 때 어떤 노래를 듣고 싶은지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새해에 어떤 노래를 듣고 2018년을 맞이하고 싶나요?



차하늘 : 빨간맛 (레드벨벳)
민사떼고! 화끈하게!



박소미 : Billionaire (Travis McCoy)
올해는 경제관념이 없어서 돈을
막 썼는데 내년에는 저축을 하고
싶어서



조은진 : FANAttitude (화나)
처음 사회로 나갈 나에게 주고
싶은 선물 같은 노래! 가장
좋아하는 아티스트이기도 하고,
2018년은 곡이가사처럼내삶의
나만의기준을 세워서 한 번 사는
인생멋지게살겠습니다.



손유정 : 미치고 싶다 (한동근)
2018년은 미치고 싶다



배웅기 : You'll Never Walk Alone
(Gerry & The FaceMakers)
나는 비가 오나 폭풍이 오나 결코
혼자 걷지 않는다./ 뜻의 가사와
노래인데 뮤지컬 '회전목마'에서
사작해서 현대에는 스포츠
응원가로 통용되고 있다. 2017
년이 나에게 2016년보다는
힘들었고 비빔고 재미없었던
해였기에 18년도에는 덜고
일어서서 날 좋아하는 사람들은
산경 쓰지 않고 내 주위에
응원해주는 사람들 그리고 날
만어주는 사람들을 위해
살아가겠다



김지원 : beautiful (크러쉬)
새해에는 아름다운 삶을 살기
위해



이현정 : 잘됐으면 좋겠다
(홍대광)
2018년에 하는 모든 일이 다
잘됐으면 좋겠다!



김고은 : 하기나해 (그레이)
스스로 책임져야하는 일이
 많아지면서 무언가를 시작하기
전에 설렘보다 두려움이 앞선다.
우물쭈물 핑계를 찾아 시작과
결정을 피하려고 하는 나에게 “
닥치고 하기나해”라고 외쳐주는
따뜻한 가사에 용기를 얻는다.
2018년에는 뭐든지 열정적으로
시작하길.



손승희 : 출발 (김동률)
아름다운 21살의 새로운 출발을
위해



유지은 : RIDE (SOLE)
여유롭고 즐기면서 일하는 2018
년이 되고 싶다



권재승 : 러브스토리 (수란)
2018년도에는 꼭 사랑을 할 수
있게해주세요



신지선 : 굿데이 (MXM)
21살에는 재발... 좋은 날이 오길..



백지연 : 사랑 좀 하고 싶어 (헨리)
연애하고 싶어서



곽미소 : FREE하게 (DAY6)
올해는 이리 치이고 저리 치였던
인생이었던 것 같다. 그래서 이번
2018년에는 정말 눈치 보지 않고
나를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지고
싶었다. 그런 내 마음을 정확하게
짚어준 노래가 바로 이 노래였다.
시원한 멜로디와 가사마저 2018
년 내가 가장 소망하는 것들이
가득 담겨져 있는 기분이 들었다.
2018년의 시작을 이 노래와
함께하고 싶다.



김효영 : 파라다이스 (인피니트)
21살은 천국이 있으면 좋겠어요.

에디터조의 2017 영! 수! 중!

김숙 저리 가라 하는 미컴과 대표 소비요정 조에디터의 영!수!중!

2017년 어느덧 마지막을 바라보고 있는 이 시점에서 올 한 해를 돌아보며, 소비 대마왕인 나에게 돈 주고도 사지 못할만한 값진 가치를 지닌 물건과, 돈을 땅바닥에 버렸다고도 생각할 수 있을 만큼 쓸데없었던 (*거의 대부분임) 물건들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한다!

“세상에서 돈 쓰는게 가장 쉬웠어요” ‘통장에 살짝 스쳐 지나간 내 돈’ 조에디터의 영수증 대공개



1. 눈썹 피어싱

물건이라고 표현하긴 어렵지만, 학창시절 부터 꼭 해보고 싶었던 눈썹 피어싱이 바로 베스트 1위 아이템! 따뜻한 봄이었던 3월, 친구들과 떠난 서울 여행에서 충동적으로 뚫게 된 이 눈썹 피어싱은 내 안의 숨겨져있던 멋짐을 뽐내기에 매우 적절했음을 얘기하고 싶고, 하고 싶은 걸 한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알 수 있게 해준 행위랄까 물건이랄까. 이제는 내 아이덴티티가 되기도 한 눈썹 피어싱. 가장 잘한 일이자 잘 산 아이템 1순위 슈퍼 그레이트!



2. 모든 불안은 밤으로부터 왔다 시집

대구역 앞에 있는 독립 책방 ‘더 폴락’에서 구매해온 종렬 시인의 ‘모든 불안은 밤으로부터 왔다’ 시집. 시 블로그를 운영할 만큼 유독 시를 좋아하는 나는 시집을 사면서 마음의 안정을 얻기도 한다. 단순히 제목에 끌려 구매한 시집이지만 책을 사고 집에 오는 지하철에서 몽땅 읽어버렸을 만큼 흡입력이 대단했던 책이다. 또, 유독 작가와 깊은 유대를 느낄 수 있어서 행복했던 것 같다. 올 한해 많은 시집들을 구매했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깊이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었던 책. 두고두고 읽어도 질리지 않을 나에게 힘이 되어준 시집이 바로 그레이트 소비 2위!



3. 샤론파스

여름 일본 여행에서 구매해온 샤론파스. 일명 짱구네 옆집 아줌마의 이마에 항상 붙어있던 편두통 파스인데, 시중에서 판매되는 파스와는 달리 크기가 매우 작다. 하지만 그 반대로 효과는 슈퍼 그레이트!!!! 항상 만성 어깨 근육통을 달고 사는 나에게 한줄기 구원 같은 아이템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이 작은 걸로 시원하겠어? 라고 묻는다면 단 2분의 시간이 그 대답을 해줄 것이다. 빠르고 걸린 곳에 샤론파스 한 장이면 언제 아팠냐는 듯 정말 시원한 아이템이다. 더군다나 양도 무지 막지하게 대용량이라 아낌없이 팍팍 쓸 수 있어 행복한 이 샤론파스가 절대 돈 아깝지 않을 그레이트 소비 3위!

슈퍼그레이트!!

1. 일본에서 직수입해온 콩가루모찌(훈와리메이진)



이것 역시 일본 여행에서 캐리어 짹짹 채워온 아이টে이다. 바로 콩가루 모찌인데, 인절미 가루가 듬뿍 묻혀진 과자로 그 중독성은 대단히 어마어마하다. 일단 봉지를 뜯기 시작하면 무의식적으로 미친 듯이 흡입 가능한 이 모찌는 먹다가 여럿 사례를 선물해주기도하고, 한 봉지를 다 털어먹을 때면 금단현상처럼 바로 다음 봉지를 찾게 된다. 과자가 중독성 있으면 얼마나 있겠어. 하겠지만, 미친듯한 중독성에 일본에서 사왔던 것은 금방 바닥을 치고 한국에서 구할 수 있는 방법이란 방법은 다 동원해서 매주 몇 개씩은 구매하고 있는 악마의 아이টে이다. 처음 널 맛보지 않았더라면 내 통의 몇 푼은 지킬 수 있었을텐데...슈퍼 스튜핏 1위!

2. 액체괴물 그리고 젤리클리너

슬라임 열풍이었던 지난 여름 물풀과 봉사를 구매해 새벽 밤을 지새우며 뜯는 액체괴물을 만들던 때의 이야기다. 항상 다이소에 가서 몇 만원 어치나 재료를 왕창 사다가 앉으나 서나 슬라임을 만들어 주무르곤 했었다. 내 영혼을 슬라임에 뺏기듯 주물렀지만, 어마 무시한 소비가 무색하게 채 일주일도 되지 않아 싫증이 나 저 구석에 버려뒀던 액체괴물 재료들을 생각만 하면 아찔하다.



더군다나 세탁도 제대로 되지 않는 진짜 '괴물'인 액체괴물들이 옷이나 이불에 덕지덕지 묻어 씻어내는데 꽤나 고생한 기억도 존재한다. 얼마 전 그 촉감을 그리워라도 했는지 홀린 듯 구매했던 젤리클리너. 말 그대로 손이 닿지 않는 부분을 젤리의 형태를 이용해 먼지를 청소해 주는 제품이다. 단돈 천 원의 소비이지만 슈퍼 스튜핏에 들어간 이유는 정말이지 효과가 0에 수렴했기 때문이다. 물론 촉감도 0에 수렴했다. 이상 죽죽한 냄새와 함께 내 노트북 키보드에 젤리 흔적만 남긴 너런 녀석 정말이지 후회하는 소비가 아닐 수 없다. 슈퍼 스튜핏 2위!

3. 쟁여둔 필름들



지난 방학 아날로그 감성에 빠져 언제나 평화로운 중고○○에서 나의 잃어버린 싸이월드 감성을 찾기도 할 작정인지 총동으로 구매했던 캐논 오토보이 3 필름 카메라. 하지만 그땐 알지 못했다. 필름 카메라가 그냥 찍히진 않는다는 것을. 소비가 줄줄 흐를 수 있는 비싼 물건이라는 것을 요샌 잘 찾을 수 없는 귀한 필름이 있어야 촬영이 가능한

필름 카메라지만 그래도 열심히 찍어보겠다는 의지 하나로 필름을 왕창 구매해 사진을 찍으러 다니곤 했었다. 하지만 꽤 무거웠던 필름 카메라와 꽤 비쌌던 필름은 점점 내 손에서 멀어지기 시작했고 하얀 먼지가 들어차 책상 위 장식을 돕고 있었다. 하지만 카메라의 필름이 돌아가며 사진이 찍히는 소리와 감성적인 사람이라는 자기 위안을 주기엔 더할나위없이 그레이트한 아이টে이긴 했다. 하지만, 작가의 게으름으로 인해 하나 둘 쌓여가는 다 찍힌 필름들이 슈퍼 스튜핏이 된 이유다. 사실 사진관에 가서 필름 인화를 맡기고 다시 찾으러 가는 그 과정을 아직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다. 괜히 필름을 여러 개 더 모았다가 가지고 가야지 하는 마음이 쌓이고 쌓여 어느새 기억 속 흐려진 그들. 내일은 꼭 사진관에 가서 내 추억들을 만나보겠노라 다짐하며 슈퍼 스튜핏을 바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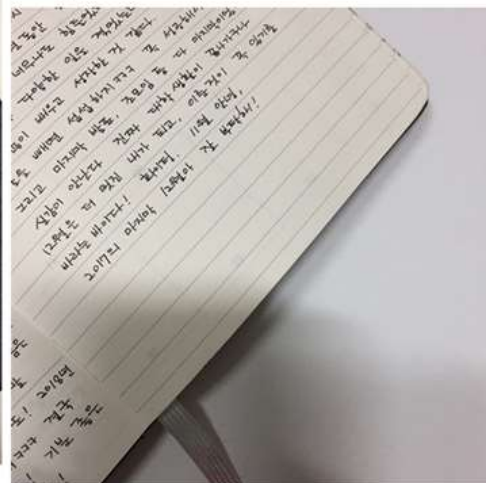
슈퍼스튜핏!!

dear, my diary

2018년을 앞두고 있는 우리들, 앞만 보고 온 시간들. 2017년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우리의 기록은 어디 있을까? 뒤를 돌아보았을 때 우리의 순간들은 어디에 기록 된 것일까? 나는 단호히 다이어리라고 말하고 싶다. 누군가에게는 2017년의 다짐, 각오, 목표, 시작이라는 순간이 빠르게 담겨진 다이어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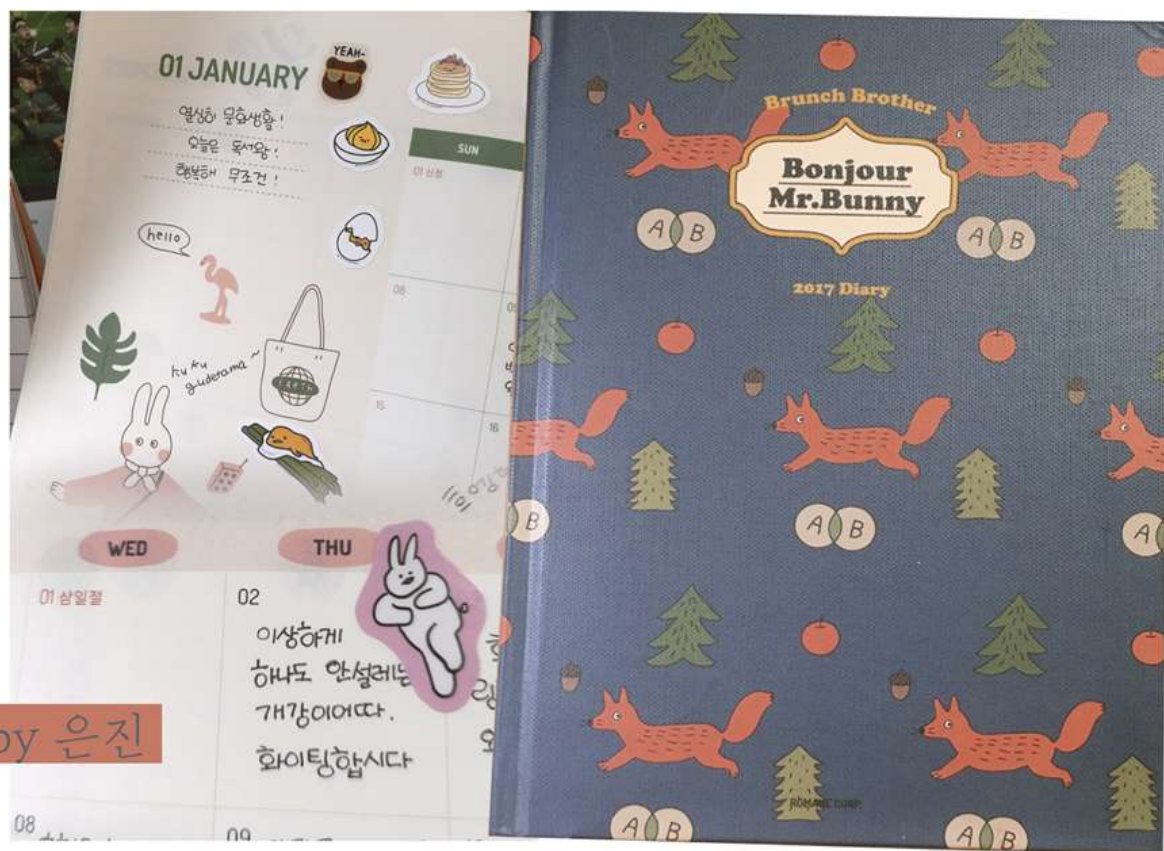
by 승민



가장 좋아하는 스타벅스 커피를 열심히 먹어서 받은 다이어리!

매번 다이어리를 구매하게 되면 3월까지만 열심히 쓰는데 2017년에는 12월인 지금까지도 열심히 쓰고 있다! 그리고 한 달이 마칠 때 마다 그 달의 후기 같은 것을 쓰는데 11개의 요약본을 다시 볼 때마다 추억들이 생각나서 좋은 방법인 것 같다! 2017년은 정말 행복하고 누구보다 바쁘게 살고 싶었는데, 정말 2017년이 가는 것이 아까울 정도로 행복한 년도였다! 2017년 남은 며칠까지도 잘 부탁할게 나의 다이어리! 떠나보내기가 아쉽다. 하지만 다가올 2018년은 얼마나 더 재미 있는 일이 일어날지 벌써 기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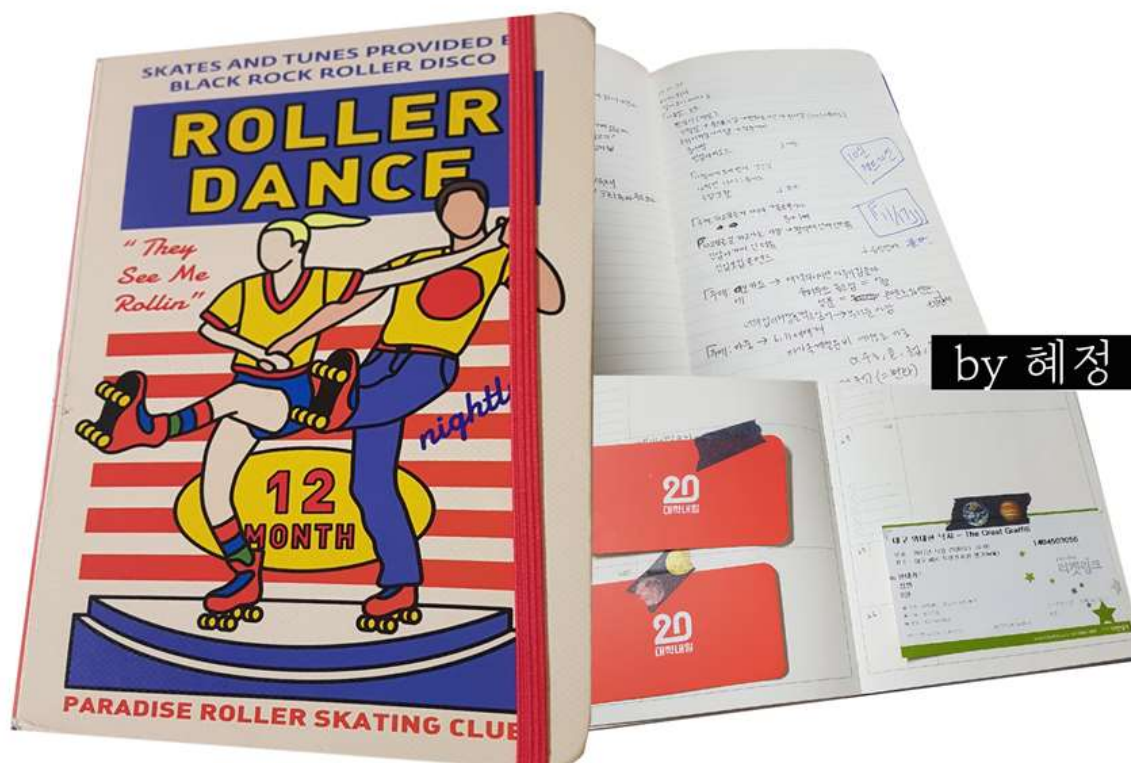
dear, my diary



초등학교 5학년, 그러니까 12살부터 23살인 지금까지 매년 빼먹지 않고 다이어리를 사는것이 나의 새해 시작이었다. 올해도 어김없이 다이어리를 찾아보던 찰나에 내 눈에 들어온 귀여운 곰탱이들. 왠지 2017년은 귀엽게 보낼 수 있을 것 같은 마음에 누구에게 뺏기기라도하는 듯 냉큼 집어왔더랬다. 그렇지만 늘 불성실한 본인 탓에 1월과 12월만 뽁뽁한 내 다이어리에전엔 늘 연말이 되면 성실하지 못했던 과거의 나를 질책하곤 했었는데, 이젠 비어있던 공백을 볼펜으로 고적거리지만 앉았지 돌이켜보면 파노라마처럼 지나가는 순간들이라고 생각하니 왠지 마음이 편했다. 이런 걸 자기합리화라고도 하는데(ㅎㅎ)

아무튼, 여느 때보다 빨리 지나간 2017년이 었다. 다이어리에 애정을 쏟아주지 못한 것도 내가 바쁘게 살아서일까?알 수는 없다. 귀엽게 살았던가에 대한 질문도 답을 할 수는 없을 것 같다. :) 늘 내 존재와 같았던 내 서랍 속 다이어리에게 올 한해도 수고 많았다는 말 전해주고 싶다. 내년은 어떤 마음에 다이어리를 충동구매할지 모르겠지만, 늘 어떤 수식어 없이 그냥 있는 그대로의 '나'가 되어주는소중한 일기장은 영원히 꼭 함께 할 것이다.

dear, my diary



by 혜정

디자인이 너무 예뻐서 산 다이어리, 표지가 너무 취향 저격. 매년 사다가 3월까지만 쓰는 나의 끈기를 확인하고 한동안 사지도 않았다. 20살 기념으로 샀는데 후회 없이 뽀뽀하게 채운 것 같아서 기분이 좋다! echo 처음 회의 때 부터의 기록이 군데군데 남아 있어서 내가 echo 에디터라는 걸 한 번 더 실감 할 수 있다는 짜릿함!! 2017년 슬프다면 슬프고 기쁘다면 기쁘 해. 정말 재미있고 알차게 보내려고 했는데, 약간 아쉬운 부분도 있지만 그만큼 만족하는 부분도 있기에 쿨하게 2018년을 맞이할 다이어리 준비를 해야겠다. 2017년 나의 모든 기록이 담긴 다이어리. 이제 서랍에서 폭 쉬어라.

2017년 당신과 함께한 모든 순간들이 다이어리에 담겨있지 않은가?

빛나는 순간, 슬픈 순간 기억으로 다 담치 못해 넘쳐흐르던 순간들이 당신들의 다이어리 안에 뽀뽀히 쌓여있다.

우리와 함께한 2017년을 함께한 다이어리의 마지막장을 펼쳐, 짧게나마 편지를 써보는 것은 어떨까?

크리스마스

를 보내는 나의 자세

Simple is the best

어릴적 진짜 산타가 있다고 믿었다. 12월 24일은 나의 잠을 항상 방해했다. 선물이
궁금해서, 산타를 보고 싶어서. 20살이 된 나는 그런 환상에서 벗어나왔다.
나는 19번의 크리스마스를 지나왔다. 올해 20번째 크리스마스도 성큼 내앞으로
다가오고 있다. 나는 크리스마스가 지날 때마다 무엇을 했을까? 특별히 기억에 남는
일은 하지 못한 것 같다. 올해 역시 기억에는 남지 못할 평범한 크리스마스를 보내
보려한다. 'simple is the best' 라는 구절처럼 말이다.



영화보기

‘크리스마스는 케빈과’ 라는 말이 있듯, 크리스마스만 되면 틀어주는 특선 영화를 본다거나 넷플릭스, 왓챠플레이 등을 이용해 보고 싶었던 영화를 몰아보는 건 상상만 해도 즐거운 일이다. 바깥에서 들리는 바람소리는 잠시 제쳐두고 따뜻한 장판 속에서 이불을 덮고 영화를 보는 것은 천국이 따로 없을 것이다.

책읽기

읽을 시간이 없다고 제쳐둔 읽고 싶은 책을 읽자. 두꺼운 책을 이틀이란 시간을 두고 마음껏 읽어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나는 읽다 중단된 ‘오페라의 유령’을 읽을 생각이다. 시간이 많아도 휴대폰을 보느라, 다른 것을 하느라 늘 미뤘었던 우리의 책들을 꺼내 읽는 것은 무조건 행복할 것이다.

사진찍기

크리스마스라면 길거리의 예쁜 조명들과 캐롤이 들리는 춤지만, 나가고 싶어지는 매력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밖으로 나가서 크리스마스만의 특별한 분위기를 사진으로 담아보자. 매일매일 매년 특별한 날은 그날의 분위기를 가지고 있다. 그 분위기를 사진에 담는 것만큼 의미있는 게 또 있을까?

크리스마스 캐롤 듣기

북적거리는 길거리에서 캐롤을 듣기보다 따뜻한 집에서 핫초코를 마시며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내고 싶은 당신! 블루투스 스피커를 들고 ‘멜론’, ‘벅스’에서 크리스마스 캐롤을 검색하고 재생해라. 어느 파티 못지 않은 당신만의 크리스마스 파티장이 될 것이다.

크리스마스트리 DIY

크리스마스에 트리를 빼면 신나던 기분도 안날 수 있기에, 부담스러운 트리가 아닌 가까운 다이소에서 해결할 수 있는 전구 트리를 만들어보자. 어렵지도 않고 부담 없는 가격으로 만들 수 있어 매우 좋다. 크리스마스에 집에만 있을 거라면 함께 있어줄 트리가 하나 정도는 있어야 하지 않을까? 손도 심심하고 할 것도 없다면 크리스마스 캐롤을 들으며 트리 DIY를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어떻게 보면 특별하지 않은 평범한 크리스마스를 보낸다.
크리스마스가 지나가는 잊을지 몰라도, 크리스마스 당일엔 우리에게 특별한 의미를 담는 활동.
크리스마스 당일 모든 일은 우리에게 특별해 나까.
각자 다른 방식으로 크리스마스를 보내겠지만 특별함의 무게는 다르지 않다.
एको 독자들 역시 특별한 크리스마스 보내길 바란다.

연말 - 술 = 0

술을 마실 명분이 충분한 연말에도 술안주는 항상 결정장애를 부른다.

라면은 너무 질렸고 과자는 너무 맛없고. 다가오는 연말,

술을 술술~ 부르는 좋은 안주 없을까?



맑고 뜨끈한 국물과 조개가 산처럼 잘 쌓인 조개탕.

겨울바람 때문에 뽀뽀 언 몸을 녹여주는 자작한 국물 한 숟갈을 마시면 마치 바다가 내 고향인 듯하다. 술안주와 해장이 동시에 해결되는 만능 안주. 왠지 고향친구들과 허름한 대포집에서 따뜻하고 편안한 연말을 보내는 상상이 된다. 입을 벌리고 있는 조개를 먹다보면 테이블 가득 조개 껍질이 쌓이는 걸 보는 재미도 쏠쏠하다.



노른자를 톡! 언제 먹어도 맛있는 육회.

노른자를 톡 터뜨리고 잘 비벼서 아삭한 배랑 먹으면 술이 술술 따라 들어간다. 처음엔 고소한 참기름 향이 퍼지고 삼킬 때쯤 느껴지는 알싸한 마늘향도 정말 최고다. 육회의 장점은 다양한 술과 잘 어울린다는 점. 또 서비스로 가끔 생간과 천엽을 주는 곳도 있다. 호불호가 갈리지만 마니아층에게는 엄청난 서비스!



소주엔 고소하고 부드러운 스프.

스프가 웬 말인가 싶겠지만 아마추어 돼지 2n년차인 에디터를 믿고 꼭 소주와 먹어보길 바란다. 자주 가는 술집 사장님의 추천을 받은 뒤로 혼술을 할 때면 찾게 되는 술안주이다. 시끄러운 연말이 아닌 집에서 조용하게 연말을 보내는 사람에게 더 어울릴지도 모르겠다. 은근 위장보호도 되니 속을 버렸으면 버렸지 술을 포기 못하는 사람들에게 더더욱 추천!



원래 밥반찬이 최고의 술안주, 차돌박이숙주볶음.

궁극의 소스라고 불리는 굴소스의 풍미를 잘 느낄 수 있는 안주. 든든하게 반주를 하기도 좋고 술이랑만 먹어도 좋다. 부드러운 돼지고기와 아삭한 숙주의 조합은 싫어하는 사람 찾기가 더 빠를 것. 다양한 연령대와 연말을 보낸다면 무난하지만 계속 손이 가는 돼지고기 숙주볶음으로 대화합을 이뤄보자.

술 좀 마셔본 ECHO 에디터들의 PICK!



샐러드+소주

상상도 못해본 조합이겠지만 은근 맛있다.

샐러드의 아삭아삭한 식감은 말할 것도 없고 이상하게도 계속 소주의 목넘김을 부추긴다.

괜히 안주가 샐러드라 살에 대한 죄책감이 덜한 건 덤!



회+사케

소주랑 맥주 말고도 술의 종류는 다양하니 많이 도전해보라 권하고 싶다.

사케에 처음 도전해본다면 이자카야에 있는 '도쿠리 사케(작은 병에 담긴 사케)'로 시작해보는 것을 추천한다

거기에 신선한 회가 더해진다면 새로운 세상에 눈을 뜰 수 있을 것!

롱패딩의 온도

기온이 낮아질수록 패딩은 높아진다.

기온이 떨어질수록 우리는 1억을 몸에 감춘 사람 마냥 한껏 움츠리고 다닌다. 하지만 그런 신세를 탈출시켜준 롱패딩. 언젠가부터 연예인 패딩이라며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걸 보았다. 그것도 잠깐 한순간 롱패딩 붐이 불었다. 국민 패딩이라 불리던 노스페이스 시대처럼 말이다. 길거리 사람들을 지켜보면 10에 11명은 롱패딩에 몸을 담고 산다. 다리까지 감싸주는 코트 같이 긴 기장과 패딩의 조화는 말해서 뭐하겠는가.

이러한 롱패딩은 다양한 브랜드에서 판매하고 있다. 심지어 보세브랜드까지 롱패딩 붐에 합류할 정도로 뜨거운 열기의 주인공이다.

여러분은 어떤 브랜드의 롱패딩을 착용하고 있는가?

겨울에 롱패딩 없이는 못산다는 두 학우의 롱패딩을 조사해 보았다. (두 개의 롱패딩은 한 명의 학우가 착용했다.)



17학번 A양의 롱패딩

-브랜드: SPAO (롱다운 점퍼, M사이즈)

-가격: 12,900원

-장점: 상, 하체의 모든 바람을 막아줍니다. 이만큼 좋은 장점이 있을까요? 그리고 아무리 대충 입어도 롱패딩 하나만 걸치면 해결이 된다는 점. 늦잠 잤을 때 진짜 유용합니다. 기본 주머니가 4개 이상 있어서 손 사릴 걱정은 없는 거 같아요. 어디든지 넣을 수 있거든요.

-단점: 롱패딩 속에 월입어도 안 보이는 장점이자 단점인데, 정말 마음에 드는 예쁜 블라우스를 입어도 보이지 않는 기능성에 충실한 옷. 그리고 너무 길어서 활동성이 떨어지는 게 느껴져요. 마치 인형탈을 위에 얹은 느낌입니다.



17학번 B양의 롱패딩

-브랜드: 유니클로 (심리스다운 롱코트, 남성용 M사이즈)

-가격: 199,000원

-장점: 가벼워서 좋아요, 마치 깃털하나를 몸에 얹은 느낌이에요. 그리고 가벼운데 따뜻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유니클로가 해냈습니다! 두 마리 토끼 다 잡았어요. 가벼워서 활동할 때도 편합니다. 이거 하나 품아라하면 무게 가벼운 거 같아요. 다른 브랜드의 롱패딩은 좀 무거운 감이 있다고 느껴지거든요. 그리고 하나 더 말하자면 주머니가 많아서 가방이 필요 없어요.

-단점: 현 제품에는 딱히 단점이 없는데, 유니클로 특성 상 여성용은 핏이 딱 맞게 나와서 저한테는 좀 안 어울린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건 롱패딩 입은 모두가 공감하실 거 같은데 화장실 갈 때 불편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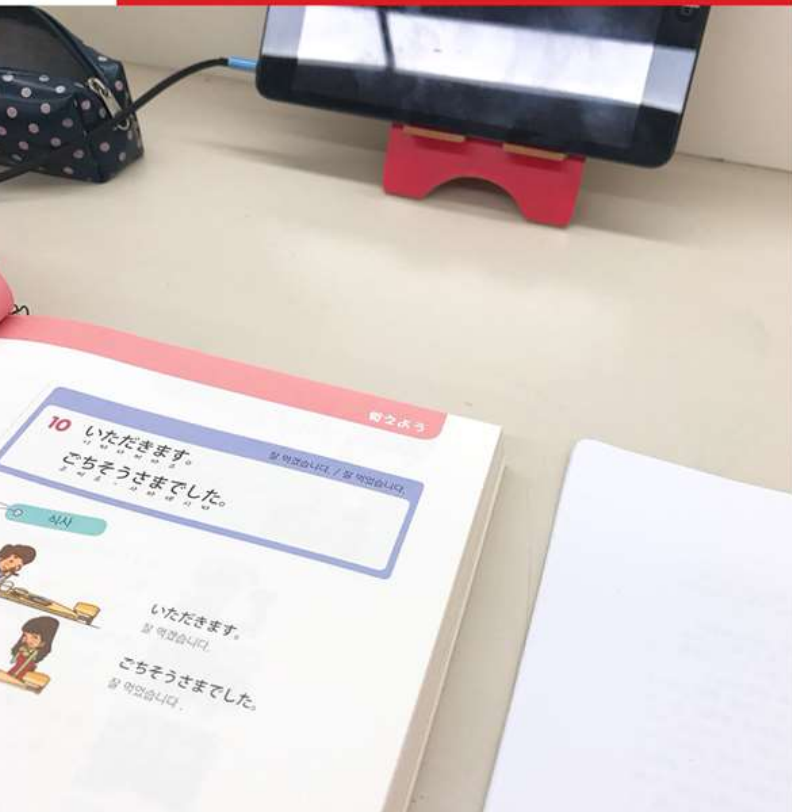
간단하게 두 개의 롱패딩만을 소개해 보았지만, 이외에도 다양한 브랜드에서 롱패딩을 선보이고 있다. 그만큼 롱패딩의 붐은 엄청나다고 할 수 있다. 날씨가 낮아질수록 우리의 롱패딩의 길이는 높아진다. 추운 날씨 따뜻하게 보내고 싶다면 롱패딩을 추천한다. 후회하지 않을 것이다.



BUCKET LIST

버킷리스트란 죽기 전에 해보고 싶은 일을 적은 목록

보통 새해가 떠오를 때 우리들은 버킷리스트를 작성한다.
나는 종이를 꺼내 펜을 들고 2017년 버킷 리스트라 제목을 적으며
버킷리스트를 작성하지는 않았지만 올 한 해 동안 이루고 싶은 것들이 있었다.



두 번째 버킷리스트 JLPT N3 따기

일본이라는 나라에 관심이 가고 자연스레 일본어 공부에 관심이 가게 되었다. 그래서 일본어 공부에 대해 알아보던 도중 JLPT 자격증을 알게 되었고 겨울방학 때 N3를 목표로 학기 중에 공부를 하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행동으로 실천하는 것은 힘들었다.

2018년 여름에는 꼭 N3를 따야겠다!

첫 번째 버킷리스트 알바비 받아서 모으기 :(

여름방학 때 처음으로 알바를 구했다. 한 달에 50 시간을 넘게 손님이 끊이지 않는 가게에서 처음 보는 사람들과 함께 일을 하는 건 처음에 힘이 들었지만 눈 빠지게 매달 5일 만을 기다린다는 행복이 있었다. 바로 월급날이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최저 시급 6470원, 많지도 적지도 않은 돈이었다. 하지만 눈 떴다 감으니 내 통장의 잔고는 매월 말 0을 찍고 있었다... 알바를 시작하면 돈을 아껴 조금씩 저축하겠다는 내 버킷리스트는 그렇게 지키지 못하였다... 지금부터라도 돈을 모으겠다. 나의 2018년 첫 버킷리스트, 지금 나의 글을 읽는 독자들 앞에서 약속을 하겠다!

세 번째 버킷리스트 에코 에디터 되기 :)

2017년 상반기에 에코의 에디터를 모집한다는 글을 봤을 때 나도 에디터로써 글을 써 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지만 학생회, 앰플이 있어서 에코에 집중을 하지 못할 거 같아 아쉬운 마음을 뒤로하고 내년에 모집 글이 올라오면 지원하자! 하며 '에코 에디터'라는 나의 버킷리스트는 이번 해에 지켜지지 않는가 싶었다. 하지만 개강을 하고 난 후 에디터를 모집한다는 카카오톡 공지를 보고 긴장만 떨림만의 마음을 가지고 연락을 해 에코의 가족이 되었다! 이번 해에 가장 잘한 일 중 하나지 않나 싶다.

길러낸 자식이 수 천 명이 넘는 거대한 엄마부대

내가 아닌 다른 이를 위한 삶. 수녀와 아이들이 모여 사는 가족 공동체. 회색 수도복 휘날리며 아이들과 함께 뛰고
길러낸 자식이 수 천 명이 넘는 거대한 엄마부대. 부산 서구 암남동. 높은 언덕 베기에 마리아수녀회가 있다.



80명의 수녀와 18세 이하 600명이 넘는 아이들이 함께 살고 있다. 이곳에는 미혼모가 낳은 아이와 고아, 가정은 있지만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이 대부분이다. 수녀님이라고 하면 먼 느낌이라 친근감 있고, 격의 없는 엄마라고 불리는 게 더 좋다는 수녀들. 씻기고 입히고 먹이고, 한차례 폭풍이 지나가면 잠시 쉴 틈이 생기기도 한다. 2층 침대 하나 간신히 들어가는 공간. 엄마수녀에게 허락된 유일한 개인공간이다. 수녀들의 개인물품이라고는 수도복이 거의 전부다. 학교 건물 안에 공부하는 교실과 생활하는 생활관이 나란히 있다. 엄마의 손길이 필요한 아이들의

엄마수녀로 살아 온지 53년. 아이들이 필요로 할 때는 모든 것을 놔두고 아이들과 온 마음으로 함께 하라는 창설자의 가르침. 젖먹이 아기부터 코흘리개 어린아이, 말 안 듣고 속 석이던 큰 학생들까지. 그러나 수녀회를 찾아온 꽃다운 나이 그 때부터 한 번도 후회 해본 적이 없는 삶이었다.

2000년 교황청 직속 수녀회로 인가를 받은 마리아수녀회

마리아수녀회는 가난한 이들에게 봉사하는 천주교(가톨릭교회)의 활동 수도회로
1964년 부산의 한 가난한 산자락에서 출발했다.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이들을 위해 살겠다는
미국인 알로이시오 슈월츠
몬시놀(1930~1992)
신부가 1964년 창설한
마리아수녀회는 한국에서
출발한 수녀회다.
(몬시놀은 주교품을 받지
않은 천주교 고위 성직자)
6·25전쟁으로 부모를 잃은
아이와 빈민 환자를 위한
봉사가 목적이었다.

그렇게 53년 마리아수녀회가 키워낸
아이들은 1만 2천명이 넘는다. 1980
년대부터는 한국, 필리핀, 멕시코, 과테말라,
온두라스, 브라질 등 6개국 10개 도시에
의료시설과 정규 교육기관을 갖춘 10개의
소년의 집과 소녀의집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무료 기숙사와 교육시설을 통해
20,665명의 가난한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정규 교육과 직업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알로이시오 슈월츠 신부는 구두 한 켤레를
신으면 닳아도 꼭 고쳐서 신고, 양복 한 두
벌로 한평생을 살았다. 그는 스스로를 가난한
사제로 살았다. 아이들을 위해서는 그 무엇도
아끼지 않았지만, 자신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았다. 그 정신이 마리아수녀회의
50년을 이어왔다. 수도복에도 그 정신이
깃들여 있다. 수도복은 잘 구겨지지도 않고,
때도 타지도 않는 회색의 나일론 천으로
만든다. 처음엔 검은색으로 만들었다.

검은색으로 옷을 해서 입고 가난한 가정에
방문을 가면 가난한 이들이 집이 지저분해
뒹았다고 한다. 먼지가 묻어도 티가 나지 않게,
그래서 가난한 이들이 미안해하지 않게
수도자의 권위를 내려놓은 회색 수도복.
그것은 평생 가난한 자들 옆에 있겠다는
신과의 약속이다. 수도자는 소유와 처분에
있어서도 가난하다. 가진 것이 없는 가난이
아니라, 바라는 것이 없는 가난. 엄마수녀는
말한다. “예수님이 가난했기 때문에 우리가
가난 속에서 살아야 하는 게 마땅해요. 그리고
자기가 가난해야 가난한 사람들과 즉시
친밀하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길은
가난한 길입니다.”

성격 깔끔하고 지저분한 걸 보지 못하는 엄마와 정리정돈이 안 되는 딸. 그 혼한 갈등이 수녀회에도 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엄마수녀의 품에서 떠나야 한다. 자식들 떠나보내는 마음이 오죽할까. 마리아수녀회 학생들 대부분은 수녀회 산하의 전자기계 고등학교를 졸업한다. 기술 하나라도 제대로 가르쳐 세상에 내보내자는 창설 신부의 뜻이다. 엄마수녀로 살면서 가장 힘든 일은 정든 아이들을 떠나보내는 것이다. 그럴 때마다 엄마수녀는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한다고 한다. “내가 뒤에서 기도로 딱딱 밀어줄 테니까, 그 기도의 힘을 믿고 너는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라.” 마리아수녀회에 50년이 흘렀다. 졸업과 동시에 떠나갔던 자식들이 어느새 아이들을 둔 부모가 돼 찾아오기도 한다. “수녀님들을 보면 항상 마음이 아프다. 나이가 들어서 구부정하게 삐쩍 말라서 언덕을 올라가시는 그 뒷모습만 봐도 마음이 아프다.” 아이들이 늘 그리워하고 보고 싶은 엄마로 남고 싶다는 엄마수녀. “행복하셨어요? 그동안?”이라는 물음에 “내 얼굴 보면 행복하게 안 보입니까? 행복합니다.” 자신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고, 오직 생명을 키우는 데 온 생을 바친 그들은 가난한 아이들을 위하여 하늘에서 보내준 엄마가 아니었을까?

엄마수녀는 말한다.

“하느님, 제 마음의 다른 것은 다 거두어 가시고, 사랑만 남게 해주십시오.”

가난한 이들을 위해 나를 버리는 삶. 엄마수녀들은 그 먼 길을 오늘도 걸어간다.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구성원 여러분!

천주교 마리아수녀회의 후원자가 되어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마리아수녀회는 세상의 가난한 어린이들과 어려운 이들을 위해서,
그들이 재능을 마음껏 발휘하며 살아갈 기회를 만들어 주고 도와주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가난하고 어려운 이들을 현실적으로 도울 수 있습니다.

마리아수녀회 홈페이지(<http://www.sistersofmary.or.kr/>)에서
정기후원, 일시후원, 물품후원으로 가난한 아이들의 힘이 되어 주세요!

(천원도 정기후원(매월 자동이체)이 가능합니다)